



TRENDING NOW: '숙취 운전 단속' 문자 확산, 전북경찰 "사실과 달라"

2024년



Search



백용성 '신역대장경' 등록문화재 예고

“최초 국역 불경-금강경 국역 초석…민족정신 담아”

기사 작성: 이종근 기자 - 2014.11.02 18:56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을 (금강경강의)' 등록 문화재로 예고했다.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은 백용성 스님이 한문으로 된 금강경(金剛經) 원문을 순 한글로 번역한 해설서로, 원광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22년에 최초로 제작된 초판본이다.

전북출신 백용성 스님은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불교 대중화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저술에 전력, 이 중 한글본 '신역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대중화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글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오용섭 교수(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최초 국역 불경이자 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자 한 선각자 백용성스님의 민족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문화재청은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이종근기자





coupanq
BEST AWARDS
베스트셀링
지퍼백
2023

EZ'n Slider Zipper Bags
쉬운 슬라이딩 지퍼백

EZ'n Slider Zipper Bags
쉬운 슬라이딩 지퍼백

EZ'n Slider Zipper Bags
쉬운 슬라이딩 지퍼백

EZ'n Slider Zipper Bags
쉬운 슬라이딩 지퍼백

coupanq 로켓배송 상품, 오늘주문! 내일도착!

새전북 만평

광고



많이 보는 기사

- 1 '숙취 운전 단속' 문자 확산, 전북경찰 "사실과 달라"
- 2 [삶의 향기]전북, '토종 스타 건설업체를 키우자'
- 3 [전북의 창]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이제 시작이다
- 4 전주 덕진동서 승용차-트럭 4중 추돌사고...1명 사망
- 5 '아이젠카' 신차장기렌트카 및 리스 6월 최대 30% 특별 한정 특가
- 6 22대 국회는 개원 원구성 난항, 골든타임속 윤곽 드러나
- 7 부안서 국내 첫 '청정수소' 상용화
- 8 "우리도 이제 한국인이예요"
- 9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 뜻에 달렸다"
- 10 '제2의 월급' 일본제철 제품투자 해볼까, 커버드콜·고배당 상품도 눈길



행사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 학생전국대회

이희철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재현

이희철



전주문화유산야행 즐기는 시민들과 관광객

이희철

알림

이금주(93세)씨 별세. 최성남,영남(태전그룹 태전약품 부사장)영란,윤형 모친상 [부음]

김성훈 군 미ucsb대학교 박사과정(김옥현 전.충북대학교수,오인정 장남) 한혜연 양 서울문정초교교사(한신 익산2공단수소충전소대표. 주민선 차녀) [결혼]

“빠떼루 줘야 함다”...레슬링 해설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 [부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대표전화: 063-230-5700 팩스: 063-231-8327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재현
고충처리인: 이종근 [고충처리]
명칭: 새전북신문 | 제호: 새전북신문 / SJBnews
종별: 일반일간신문 / 인터넷신문 | 간별: 일간
등록번호: 전라북도, 가00004 / 전라북도, 아00058
등록일: 2000.10.23 / 2012.03.06
발행인: 박명규 | 편집인: 박명규



새전북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 Mail to sjb5723@hanmail.net | <http://sjbnews.com>